

경산성, 신흥국 인프라수출 지원

- 전세계 인프라 수요는 2030년까지 42조 달러로 전망. 인프라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인프라수출 지원을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이번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신흥국, 개도국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약 1조 엔 규모로 10개 사업을 지원
- 특히, 동북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주 금액의 10%를 피해지역 기업에 할당한다는 것이 특징

□ 경산성, 「인프라·시스템수출촉진조사사업」 개요

- 경제효과가 큰 분야에서 해외인프라·시스템을 수주함으로써 피해 지역경제 부흥과 일본산업의 재생에 기여할 목적
-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등 투자환경정비, △지구문제 대응을 위해 일본기업의 우수기술·노하우를 활용한 엔 차관 프로젝트 및 민간 기업을 활용하여 인프라 정비프로젝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
- 지원 사업으로 채택된 기업은 신흥국에서 일본의 인프라(수도, 철도, 전력시스템, 교통 등) 사업의 △수출기획, △입안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일본 기업이 수주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
- 지원 대상사업으로 채택되면, 우선 조사비로 1건당 약5000만 엔을 지원 받아, 신흥국에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에 관여

- 기획 단계부터 관민협력으로 인프라수출 기획에 관여하게 되며, 현지정부로부터 신뢰를 얻기 요이한데다가, 신흥국은 인프라수요 조사를 위탁한 기업에게 수주를 맡기는 경향이 높아서 유리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경산성은 이번 지원 대책을 지진피해 복구의 일환으로 구상하고 있어, 인프라수주에 성공하면 피해지역의 공장에서 생산한 기계 등을 우선 납품받을 계획임

□ 신흥국 인프라 조사사업 선정기업

- 경산성은 2월1일 인프라수출 확대를 위해 약1조 엔 규모로 10개 사업의 지원계획을 발표
 - 대상 국가는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지역으로 상하수도정비, 환경도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채택된 미쓰이물산, 히타치제작소 등 일본 기업은 사업화를 위한 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금은 일본정부가 2011년 제3차 추경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
- 지원 대상사업 가운데, 미얀마 상수도설비의 개선사업 조사는 동양엔지니어링에서 계획을 입안
 -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의 정수장은 처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수장 신설·증설, 송수펌프설치 등 총 300억 엔 정도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
 - 에다노 경산대신도 금년 1월에 미얀마를 방문하고 인프라정비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표명

- 미얀마에서는 상수도정비 외에 미쓰이물산 등 기업연합으로 전력 공급 설비 보수사업을 진행시킬 계획
-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무라종합연구소나 서일본고속도로가 자카르타의 고속도로 자동요금처리시스템(ETC) 도입사업에 관한 조사를 실시
- 자카르타에서는 치요다화공건설, 다이세이건설 등이 환경도시사업을 추진할 계획
- * 인도네시아 정부 간부는 닛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

〈인프라수출 지원 대상 사업〉

국가명	사업내용	주요 기업
미얀마	상하수도 처리설비 정비	동양엔지니어링
	양곤의 화력발전소 보수	미쓰이물산
캄보디아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전력공급	이토추상사
	신교통시스템 등의 도입	히타치제작소
인도네시아	고속도로의 ETC설치	서일본고속도로
	자카르타에서 환경도시 정비	치요다화공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정비	야치요엔지니어링
파나마	지하철역 정비	일본공영, 미쓰비시상사
말레이시아	쓰레기 소각에 의한 전기나 냉열 공급	日揮, 히타치조선
모로코	인광석의 수송 철도 증력 증강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 시사점

- 전세계 인프라 수요는 2030년까지 42조 달러가 발생할 전망
- 세계 각국이 신흥국에서의 인프라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에서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지정부와 협력 등 수요조사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일본의 인프라수출은 확대전략은 엔고로 인한 기업들의 해외진출로 나타나는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음
- 일본의 인프라수출 전략은 우리나라와 경쟁이 심화되기도 하겠지만, 분야에 따라서는 협력이 가능한 프로젝트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일협력에 의한 수주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日本經濟新聞(2012.2.1). 「インフラ 1兆円 輸出を支援へ 被災地から優先調達」
한일재단,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한일연계 지원체제 구축(2012.2)